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월 12일 (제103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거울 앞의 당신에게

“초석아,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했어? 그것마저도 참았어야지.”

나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충고를 한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지나치리 만큼 냉정하다. 작은 잘못에도 혹독하게 그를 나무란다. 때론 빵을 때려가며 야단을 친다. 그러나 때론 나는 거울 앞의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찬사를 보내며 박수를 친다. 역경을 이겨낸 거울 앞의 그에게, 타협하지 않은 그에게, 더디다는 소리를 들어도 정도(正道)를 간 그에게, 유혹을 이긴 그에게 아낌없이 칭찬하고, 손에 땀이 나도록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도 보낸다. 힘내라고, 더 잘할 거라고, 더 건강하자고!

나 자신과의 대화는 아픈 회초리이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촉진제이기도 하다. 나와 나의 대화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를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남들은 모르는 죄나 악, 남의 눈에는 들리지 않는 나태함이나 오만함, 하나님과 나만 아는 불순물들을 거울 앞의 나와 진솔하게 얘기하여 회개하고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만이 느끼는 성취감, 나와 나의 약속, 왼손도 모르게 한 오른손의 선(善) 같은 것들을 자축하고, 자찬할 수 있기에 그렇다.

당신도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당신과의 대화는 시작된다. 거울 앞의 그에게 잘못된 것은 호되게 나무라고, 잘한 일에는 후하게 칭찬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매일 나를 반성하고, 매일 나를 칭찬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내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있으랴. 매일 거울 속의 대화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주름잡힌 것이 없는 삶이 완성되리라.

2020년, 해가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랴. 다만 내가 달라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나.

오늘 거울 앞에 서보자!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의 몫이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대망의 2020년을 맞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위성과 유튜브를 통해 전국과 전 세계로 생중계된 송구영신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의 몫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2020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단호히 말하건대 게으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편안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사람들, 꼭짓점 인생을 사는 사

그러나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잠10:4),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잠12:24), 마음의 풍족함을 얻고(잠13:4),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히6:11).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금의환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압박한 외삼촌 밑에서도 부지런이라는 무기는 통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지런히 일

여러분, 한 마디로 ‘게으름은 무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부모가 자식 잘 키우는 것 못 봤습니다. 게으른 주의 종 이 목회 성공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곧 부지런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부지런을 펴어봅시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보고, 부지런히 주의 일하고...



2020 송구영신예배(KBS 아레나)

람들, 믿음의 선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근면, 성실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고리타분한 말 같지만, 근면 성실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시대 불문하고 진리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남들과 같아서야 어찌 성공하겠습니까? 누구나 성공에 도전할 수 있지만, 성공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발에는 잡초가 많습니다. 잡초는 그냥 두면 납니다. 인생도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잡초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잠10: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잠10:26), 남의 부림을 당하게 되고(잠12:24), 어려움이 많고(잠15:19), 구걸해도 얻지 못하고(잠20:4), 패가망신하게 되고(잠18:9), 굶주리고(잠19:15), 쇠퇴할뿐더러(전10:18),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요(마25:26~30).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을 펴었습니다. 저 역시 지칠 정도로 부지런을 펴었기 때문에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참 잘도 댑니다(잠22:13). 그런 그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말이 있고, 옛 어른들도 ‘엉덩이가 가벼워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은 성공을 위한 만능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지런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부지런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사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쟁취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름 = 악’이라 했습니다. 2019년의 게으름, 곧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2020년에는 영·혼·육의 성공을 쟁취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은 변하는 법, 게으른 나를 버리고 부지런한 나로 변모하면 희망찬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박수를 치며 달려올 것이다.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naver.com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6:39~40)

나는 소경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눅6:39).

여기서 ‘소경’이란 육적인 소경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뻤으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영적 소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한 자는 물론이요, 인도함을 받은 자까지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통탄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 소경이요, 그 영적 소경의 인도함을 받는 자 역시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현주소요, 시간표이니 답답할 뿐입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라

오늘날은 혼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문화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교양을 함양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멋있어 보이지요. 수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소경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찰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 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사53:5). 또한 예수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고후8:9).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까? 예수가 죄도 청산하셨고, 고통과 병과 가난도 다 청산하셨건만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있겠지요.

성도들이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들이 심방가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요. 물론 회개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어느 아버가 잘못 좀 했다고 자녀를 저주합니까? 거미가 거미줄 쳐놓고 어느 것이 걸리나 기다리듯,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병 걸리게 하고, 다 빼앗아가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 하건만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죽여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마7:11). 그게 아닙니다. 제발 잘 듣고 눈 좀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누가 우리 것을 도적질해 가는지 몰랐습니 다. 당연히 왜 넘어지는지, 왜 망하는지도 몰랐습니 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 다(요12:46). 바로 원인은 마귀의 줄개 귀신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마귀에게 먹히고 난 후, 마귀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우리에게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기도 하지요(마12:4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특권입니다(막1:27).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입니다(요일3:8). 그렇다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귀신을 투입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꼬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지운 놈이 마귀 아닙니까? 자고로 마귀는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 놈을 쫓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귀신은 성령을 힘입어야만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됩니다(행1:8). 왜냐하면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울의 옷만 만져도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귀를 진멸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며, 천사를 부릴 수 있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더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

히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일을 한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까? 용장 밑에 약졸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닐진대,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 더 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요? 왜 힘든지 압니까? 따르는 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사 말은 잘 믿습니 다. 과학자 말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목사 말은 잘 안 믿습니 다. 왜냐하면 의사도, 과학자도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사는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도 그냥 ‘천국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9: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무턱대고 천국을 설파하지 말고 표적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5~8).

누구에게 배웠느냐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

여러분, 가난과 병과 저주와 고통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당신이 영적 소경이라 영의 세계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와 능력이 성령충만함을 입은 당신과 저에게도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암행어사 마패요, 면허증과 같아 악한 것들이나 가짜들이 다 멀리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적 소경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보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실행하세요. 매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세요. 큰 병이든 감기든 머리에 손을 얹고 쫓으세요. 일이 안 될 때도, 우울할 때도, 불안할 때도 다 쫓으세요.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다. 학교 대학과정을 마치고 종합건설회사에 응시, 합격하여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2개 취득하여 더 큰 회사,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긴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때도 예수는 믿었지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러던 중 한국 예루살렘교회로 옮겨 성령을 받으니 모든 삶이 뒤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입학, 졸업하여 목사가 됐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5:15),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충격을 주었다. 내 용인즉.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해 대신 죽었는지 아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살았으니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시 부활한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이다.” “주여! 지금부터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완전 180도, 나에서 예수로 바뀌었다. 총회장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요15:14).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목사님이 손수 작사하신 곡에 예수 사랑이 흘러넘친다. 특히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라는 찬양을 부를 때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누가 볼까봐 손등으로 슬쩍 훔친다. 12월 22일, 성역 35주년 주일 영상예배 때도 보았지만 사도인 목사님의 행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적으로 누가 돈을 준다고 오라 하면 나는 안 간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모든 행적은 그분의 존재 이유다. 나는 영상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목사님 만난 그 자체가 축복이다. 어디서 이런 능력과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목사님은 가끔 나를 닮으라고 하실 때 ‘아멘’은 하지만, 목사님이 집채만 한 큰 바위라면 나는 바둑알만 한 조그만 조약

돌같이 스스로 작아진다. 나는 늘 3시간 새벽기도와 저녁기도 1시간 정도 한다. 1년 전 새벽기도 중에 주님은 툭툭한 음성으로 “예수가 간다. 간다. 곧 간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피, 예수를 증거하라.”고 거듭거듭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기도할 때 툭같은 음성으로 또 들려주셨다. 이 음성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나는 처음 이 음성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모이는 전철역 앞이나 버스정류장 앞이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중에 대복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전도에 매진할 것이다.

양주예수중심교회 강반석 목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시는 곳마다 전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영혼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기 위해 왔노라 하셨습니다. 제가 방배총신 2학년 때 유명한 신학박사가 수업시간에 하는 말이 ‘요새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귀신 잘못 쫓다가 그 귀신이 더 달라붙으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 귀신 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방배총신에서 나와서 그레이스신학교 졸업

반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한국예루살렘교회에서 신학교를 시작한다고 하여 다시 예루살렘신학교에 입학하여 오늘날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아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던 일, 마귀에게 놀려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니 그저 감사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마귀의 일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가 마귀를 없애 하시고,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2020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귀한 한 해가 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안산예수중심교회 김초대 목사

:: 프롬 인터넷 ::

아름다운 사람들

얼마 전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손수레가 길가에 세워둔 외제 승용차 아우디 차량 옆을 지나다 승용차를 굽은 사건입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도로 코너에 정지된 앞면을 굽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할머니는 손자가 끄는 수레를 멈추고 어쩔 줄을 몰라하자 할머니의 놀라고 걱정스런 표정을 바라보던 손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자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차주인에게 알릴 방법을 생각하자 차 주변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

했습니다. 그 웅성거리기 속에서 나타나는 요즘 사람들의 심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손수레 안을 들여다보니 콩나물 한 봉지와 손자가 좋아할 바나나 송이가 보였습니다. 이 글을 기고한 게시자는 콩나물과 바나나 송이를 보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썼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외제 차량을 흠집 내고 그냥 돌아서지 않는 양심 있는 모습이었습니

타났습니다. 첫 번째 감동이 할머니라면, 두 번째 감동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를 해 통행에 방해가 되게 했으니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차주의 아내 되는 분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자를 오히려 미안하다며 달래주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차주의 인성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사건의 기고자는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고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보다

는 저런 인성을 보다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동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우디 코리아는 이 차주를 수소문했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면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수리를 했다면 수리비 전액을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이분들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선행들이 합쳐지니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행복 바이러스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제2의, 제3의 감동 드라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분이 써나가면 좋겠습니다.

This is the Church(이것이 교회다)!



예수중심교회는 내게 교회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바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고, 그것으로 종으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며 펼쳐려던 종으로서의 포부는 그리 마음먹은 대로 쉽게 펼쳐지지 않았습니 다. 내가 공부했던 지식과 현실 사이에는 쉽게 가능할 수 없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내가 가야할 길에서 더 이상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있고 있던 중 우여곡절 끝에 예수중심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은 내게 정말로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교회가 있었나?’ 하는 감정이 내 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릇한 감정이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 ‘그래..., 내가 알아내자.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내가 확인하자’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언가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짜 실천 신학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그 살아있는 지식, 그것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타 교단 신학교에서 4년 동안 학부과정에서 배운 것보다 단 1년간 이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훨씬 더 컸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감사가 왔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는 물론이요, 언젠가는 종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내게 진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중심교회로 동지를 옮긴 지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기는 내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 공부해야 할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발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내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타 교단 신학생 시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단퇴치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이단의 첫째 되는 경계 1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내게서 기타(Guitar)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꽤 있었는데 내가 거래하는 악기점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분이 있는데 ‘찬양기타를 좀 배울 수 있을까’ 해서 나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전도사 사역을 했던 터라 반가움에 선뜻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뵘싸, 그 전도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예수중심교회라지 뭐니까!

‘오, 주여 아직도 젊은 분이 왜 하필 πππ, 그래, 까짓거 찬양기타라니까 우선은 가르치자.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 분을 회유시켜 정통교단으로 빼내오자.’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색이 그래도 내 제자인데 미안해 서라도 한번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우선 오전에는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오시는 게 어떨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내 모든 걸 유턴(U-Turn)시키는 길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묘막측 그 자체였습니다. ‘이단퇴치운동을 하던 내가 이단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건 정말 사건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던 순간, 나는 삼시간에 무너졌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내 두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 눈물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사역만 17년 이상을 해왔었는데 그게 이미 한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찬양은 내게 산소호흡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찬양이 좋아서였고, 찬양 드릴 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벅찬 심장의 박동으로 오래전에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그렇게 많이 울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저차한 이유로 오랫동안 찬양사역을 중단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못 보였던 주님을 만나는 감동에 펄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전에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을 만났 습니다. 그 집사님이 대뜸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합니다. “아니, 우짜다가 그래 이단 교회로 가셨대유?”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선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 고 있었습니다. “이단? 집사님, 집사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봤어? 그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냐? 한번 확인해봐.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 집사님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전도사님을 말로 우찌 이길까나...”

하나만 더 얘기하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사역을 해왔지만 내겐 늘 갈급한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알 수 없는 어떤 타는 목마름이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목자는 없는 걸까?’ 이게 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아닐까?’ 솔직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나의 그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9년 12월 22일 주일에배웠습니다. 목사님의 성역 35년 영상으로 보다가 ‘그래, 이 분은 진정한 목자, 바로 그분이다!’ 나는 내 무릎을 탁 치며 흥분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자,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역수같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 시간동안이나 그 비를 다 맞아 가시면서도 끝까지 말은바 책무를 다하시는 중, 그리고 또 하나는 시카고 목회자 세미나 중 호통을 치시며 그들의 안일한 정신자세를 고치시려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혼잣말로 주님께 고했습니다. ‘주님, 저분은 진짜 목자 시네요, 맞죠? 아니 이 땅 어디에 저런 목자가 있습니까? 비가 저렇게 오면 백이면 백 다 비 때문에 못하니 연기하자 할 테고, 그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저 비를 세 시간이나 맞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저 자세. 오 주여, 누가 저리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면데까지 가서서 저기 모인 분들도 목회자들인데 뭐 그리 혼낼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듯한데 누가 저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분은 진짜 목자이십니다!’ 나는 드디어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내 흥분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예수중심교회는 내게 찬양을 찾아준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말씀의 진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진짜교회, 그리고 진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나는 이제 당당히 얘기합니다. “This is the Church! This is a real Church!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예수중심교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주 혁신예수중심교회
전요한 준목사

진정한 그리스도인

2009년 9월 말, 마스크에 자장면 배달부로 월 72만 원을 벌며 5명의 어린이를 돕다 사망한 전과 5범 김의수 씨의 기사가 실렸다.

그는 사생아로 교회 앞에 버려져 교회 종치기로 거뒀지만,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가출했고, 서울역에서 구걸과 앵벌이를 하며 자랐다. 그나마 모은 돈도 강패에게 빼앗기고, 방화미수 등 전과 5범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 동료 사형수가 남긴 책에서,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진 동생에게 어깨에 매주는 가방을 사주고 싶다는 오빠의 마음이 담긴 글을 보게 된다. 이에 감동을 받은 그는 교도관을 졸라 전 재산인 13만 원을 어린이재단을 통해 보낸다.

2주 후 그는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아픈 아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하고 감격하여, 그 후 7년 동안 고아 5명을 돕게 되는데, 어느 날 배달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무연고자로 밤중에 화장터로 향하던 중 하나님이 역사하사 검사의 지휘 아래 서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사연인즉 무연고자에다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기침이 심했던 그는 교보생명을 찾아 약속을 지켜야 할 5명의 아이들이 있다며 교보생명 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소장이 직접 보증이 되어주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에게 초청까지 받았던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 곧 영화화되었다. 비록 공부를 많이 못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증오와 울분에 가득 찬 청년의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김의수, 그의 1평 남짓한 고시원 한 칸에는 구약 817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추성숙 집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당신의 소망하는
2020년의 성공비결이다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